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CNNBusiness: 작년 4분기 미 경제 성장률, 고작 0.7%
- Bloomberg: 3월 미 소비자 심리, 전쟁으로 3개월 만에 최저
- YahooFinance: 1월 미 핵심자본재 주문 '주춤'
- Bloomberg: 올 1월 미 소비 지출도 늘지 않아...인플레 지속
- Bloomberg: 이코노미스트들 "올해 연준 두차례 금리 인하"

[중동 위기]

- WSJ: 이스라엘 관리들 "이란 정권 금방 무너지지 않을 듯"

[오일]

- WSJ: 이란의 호르무즈 폐쇄속에 브렌트유 1백불에 거래

[뉴욕시]

- WSJ: 뉴욕시 30불 최저임금안, 소기업 흔들다

[주택]

- CNNBusiness: 연방 상원, 대규모 주거 부담 완화 법안 통과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우버와 Hyundai 지원 Motional, 라스베가스서 로보택시 재개

---

[미국 경제]

**CNNBusiness: The US economy grew just 0.7% last quarter, ahead of a potentially destabilizing war with Iran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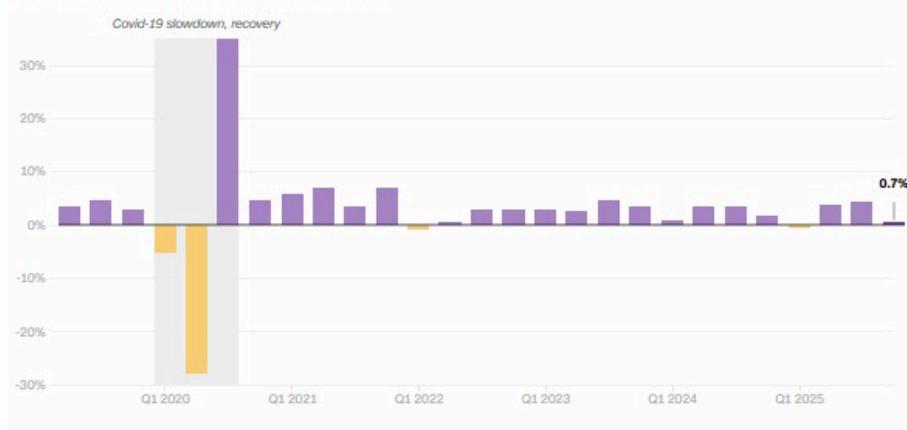
**작년 4분기 미 경제 성장률, 고작 0.7%**

- 작년 4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당초 발표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GDP가 4분기에 연율로 0.7%에 불과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금요일 관련해 두번째 발표를 했다. 연방정부 셋다운도 한몫했다.
- 이는 당초 발표율 1.4%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며 3분기 성장율 4.4%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.
- 이 같은 저조한 수치는 수출, 소비자 지출, 정부 지출이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이다. 특히 수출의 경우 당초 -마이너스 0.9%로 발표됐으나 마이너스 3.3%로 하향 조정됐다.

### Tracking GDP: US economy grew in the fourth quarter of 2025

The quarterly real gross domestic product, known as GDP, grew at an annualized rate of **0.7%** in the fourth quarter of 2025.

#### Quarter-over-quarter change in real GDP, annualized



Notes: Figures represent seasonally adjusted annual rates. Data current through the fourth quarter of 2025 as of March 13, 2026, at 8:52 a.m. ET.

Source: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
Graphic: Matt Stiles, CNN

기사

### Bloomberg: US Consumer Sentiment Slips as War Worries Start to Mount 3월 미 소비자 심리, 전쟁으로 3개월 만에 최저

-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값 등에 대한 여파로 3월 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.
- 미시간대학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임시치가 2월의 56.6에서 55.5로 감소했다. 이번 수치 조사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이뤄졌다.
-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연율 3.4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달 전망치가 같았다.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는 연율 3.2%로 예상해 전달 예상치 보다 약간 떨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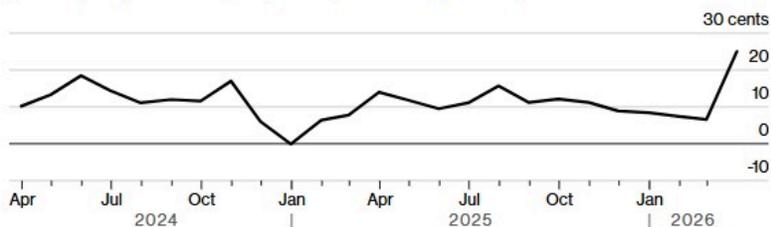
#### US Consumer Sentiment Dips After Iran War Begins

Average year-ahead gas price expectations rose to the highest since 2022

Consumer sentiment index



Average expected change in gasoline prices during the next year



Source: University of Michigan

기사

# YahooFinance: US core capital goods orders unexpectedly flat in January

## 1월 미 핵심자본재 주문 '주춤'

- 1월 미국의 핵심 자본재(비국방 자본재) 주문이 변동이 없고 자본재 출하량도 줄었다. 올해 1분기 장비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이 둔화된 점을 보여주고 있다.
- 이 같은 수치는 12월의 0.8% 상승에 이어 1월에는 변동이 없는 수준이라고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 센서스국은 밝혔다.
- 핵심자본재 출하량도 작년 12월에는 1.0% 증가했으나 올 1월에 0.1% 하락했다. 그러나 이 같은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비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기사

# Bloomberg: US Consumer Spending Barely Rises After Weaker GDP Growth

## 올 1월 미 소비 지출도 늘지 않아...인플레 지속

-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존 발표보다 하향 조정된 1월 미국 소비 지출이 거의 늘지 않았다.
- 연방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.1% 증가했다. 반면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(Core PCE) 물가지수는 0.4% 상승했다.
-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.
- 앞으로 수개월간 세금 환급과 임금 증가가 소비를 일부 뒷받침할 수 있다. 그러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약한 고용시장 때문에 향후 소비가 둔화할 위험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망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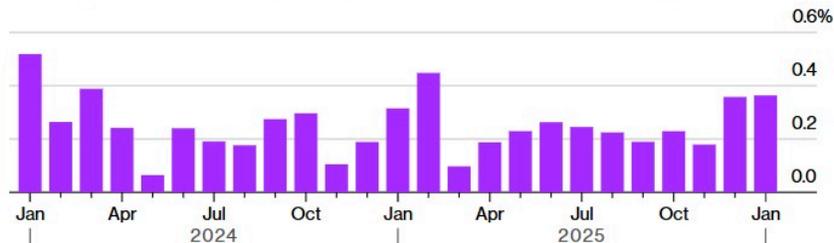
### US Consumer Spending Barely Rose in January

Americans were cautious at the start of the year as inflation continued to bite

■ Change in inflation-adjusted consumer spending (MoM)



■ Change in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ex. food, energy (MoM)



Source: Bureau of Economic Analysis

기사

## Bloomberg: Economists See Two Fed 2026 Rate Cuts and Reveal Worries Over Chair Nominee Warsh

이코노미스트들 “올해 연준 두차례 금리 인하”

-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의 다음 차례 금리 인하 시점을 올 3월에서 6월로 늦추긴 하겠지만, 연말까지는 0.25%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 할 것으로 보고 있다.
-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약 3분의 1은,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전 Kevin Warsh의 연준 2% 물가 목표 달성 의지에 우려를 보였다.
-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회의에서 연준이 물가 전망은 약간 상향하고 성장 전망은 소폭 하향할 것으로 예상한다.

기사

[중동 위기]

## WSJ: Israeli Officials Think Iran's Regime Isn't Likely to Fall Soon

이스라엘 관리들 “이란 정권 금방 무너지지 않을 듯”

-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 정권이 당분간 붕괴할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. 현재 이란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, 반란이 일어날 만한 상황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다.
- 이란의 군·정치 지도부는 그들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, 경찰 등 공권력은 거리 통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위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.
- 한편, 미국 관리들은 이란의 군사력, 핵 프로그램, 탄도미사일 능력 약화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## WSJ: Brent Oil Trades Near \$100 as Iran Vows to Keep Hormuz Closed

이란의 호르무즈 폐쇄속에 브렌트유 1백불에 거래

-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1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었다. 이란이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.
-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, 천연가스, 디젤 등 제품의 운송이 거의 중단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.
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이번 공급 차질이 크다고 경고했다. 그리고 IEA가 비상 석유 비축분을 방출했지만 이 효과는 아마 단기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기사

[뉴욕시]

## WSJ: New York City's \$30 Minimum-Wage Proposal Rattles Small Businesses

### 뉴욕시 30불 최저임금안, 소기업 혼돈다

- 뉴욕시 의회에 발표한 법안은 대기업의 최저 시급을 2030년까지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.
- 현재 뉴욕시 최저 임금은 17달러인데 대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시간당 30달러, 그리고 5백명 미만의 기업들은 2032년까지 30불을 요구하는 방안이다.
- 한편 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, 최저시급 30달러는 약 168만 명의 뉴욕시 근로자 임금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.

기사

### [주택]

## CNNBusiness: Largest housing affordability package in a generation passes in the Senate

### 연방 상원, 대규모 주거 부담 완화 법안 통과

-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.
- 법안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약 40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하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.
- 이 법안은 민주당의 Elizabeth Warren (Massachusetts)와 공화당 Tim Scott (South Carolina) 상원 의원이 공동 주도했으며, 지방정부 주택 개발 지원, 규제 장벽 제거, 조립식 주택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.
- 그동안 미국은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.
-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30년간 가장 중요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 Bloomberg: Uber, Hyundai-Backed Motional Relaunch Robotaxi Service in Vegas

### 우버와 Hyundai 지원 Motional, 라스베가스서 로보택시 재개

- 우버와 모셔널(Motional)은 공동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재개한다. 이번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게 된다. 모셔널은 현대 자동차가 지원하고 있다.
- 라스베이거스의 우버 이용자는 차량 모델별로 예컨대 UberX, Uber Electric, Uber Comfort를 호출할 때 추가 비용 없이 모셔널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.
- 한마디로 우버 앱으로 모셔널 차량도 이용 할 수 있다.
-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운전석에 안전 운전자가 탑승하지만, 양사는 연말까지 운전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